故 김 현 우리시대 비평의 논리와 감성

—— 그의 작품세계와 문학성을 추억함

비평이란 문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문학비평이라는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립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이런 식의 질문은 문학비평의 방법과 정신을 문제삼을 경우, 언제나 전제될 수 있는 문제이다. 우리들의 비평가 김현 선생을 생각하고, 그의 비평활동을 돌아보고, 그의 갑작스런 죽음을 애도하는 데에도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이러한 의문이라는 점은, 선생의 비평활동이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문학비평가 김현-마흔 아홉의 생애전체가 문학비평의 영역에 어우러져 있는 선생의 비평활동은 문학 자체의 존재의미를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생에게 있어서의 문학비평은 문학을 문학의 자리에 온전히 남아있게 하기 위한 일종의 인식행위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문학을 위해서라든지 비평의 독자성을 위해서라는 식의 양분법적인 논리로 규정되기 어렵다. 문학행위라고 말해지는 언어적인 활동 자체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비평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김현 선생의 비평은 문학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한 가치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학의 전체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생은 문학비평이 문학을 다른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가치로 바꾸어버리는 일에 반대하였으며, 문학으로서의 존재의미를 가능하게 하는 문학적 속성들을 문학 작품 속에서 규명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김현 선생의 비평활동 가운데 가장 주목되고 있는 특징중의 하나는 비평의 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생각할 수 있다. 불문학자로서의 선생 자신의 학문적인 배경과 입장을 염두에 둘 경우, 선생의 방법론에 대한 천착은 20세기 중반 이후 프랑스 문학 비평의 전체적인 흐름을 상당부분 압축해 놓고 있는 듯한 인상마저 받게 된다. 실존주의 이후 신비평을 둘러싼 논쟁에서부터 구조주의와 기호학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있는가 하면, 심리주의적인 비평 방법과 문학사회학의 영역을 두루 섭렵하고자 하는 노력도 확인된다. 이러한 방법론의 천착은 물론 다양한 문학의 세계에 접근하기 위한 지적인 모험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방법론 자체에 빠져들기 쉬운 결정론적 오류를 모두 극복해 내고 있다. 선생의 방법론의 다양성이란 결국 문학 작품으로 떳떳하게 돌아오고자 하는 의욕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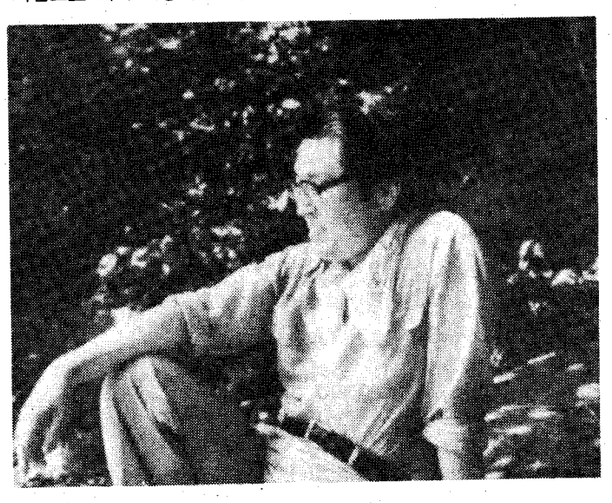
김현 선생의 문학비평의 방법론은 그것이 비록 서구적인 문화의 배경 속에서 정립되어온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과 문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애정을 기반으로 하여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설득력이 강하다. 선생의 정밀한 시작품에 대한 해석은 우리말의 문학적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선생의 비평이 방법론의 기능성에 대한 집착을 훨씬 뛰어넘는 자리에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은 모두 이같은 특성에 기인한다.

김현 선생의 비평활동에서 또 하나의 특징을 든다면, 그것은 선생의 비평이 독자적인 자기 문체를 확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생의 비평은 어떤 경우에도 논리에만 얽매이거나 주관에 집착하는 예가 없다. 하나 하나의 비평문들이 그 자체로 세련된 문학작품처럼 읽혀진다. 이것은 그의 비평적 방법의 수용 수준을 말해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한다면, 방법론의 인식자체가 심오한 경지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비평의 자기 문체의 확립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비평이 한 시대의 정신문화의 수준을 말해주는 척도라고 한다면, 김현 선생의 비평과 그가 확립한 비평 모체가 우리 시대의 정신적 좌표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김현 선생의 문학비평은 당대 문학의 현장과 문학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서로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포괄성이 또한 주목된다. 선생이 남긴 저작 가운데 '한국문학사'(공저) '한국문학의 위상' 등은 우리 문학의 역사에 대한 도전적인 방법으로 쓰여진 것들이다. 기존의 문학사 연구가들이 지니고 있었던 일종의 통념들에 도전하면서 한국문학의 전체성을 확립해 보고자 하는 선생의 의욕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작업과는 달리 불문학자로서의 아르바이트는 '프랑스 비평사' '바슐라르연구' '쥬네브학파 연구' 등을 통해 그 진지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현 선생의 비평활동을 문단적인 상황과 연관지어 본다면, 선생이 1970년대 문단에서 '문학과 지성'이라는 계간 문학지를 중심으로 이른바 '문지파'로 지칭될 만큼 특질적인 문화적 성향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는 점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성의 논리에 대응하는 선생의 개인주의적 신념을 논할 만한 능력을 필자는 갖고 있지 않지만, '문학과 지성'이라는 한시대의 잡지가 그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적 풍토를 조성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다.

문학비평가 김현 선생은 번득이는 예지와 날카로운 관찰력과 균형잡힌 언어로 이루어진 선생의 비평적 작업과 함께 우리문학사에 기록될 것이다. 선생이 추구해온 비평의 방법은 이제 우리 비평의 과제로 남게 되었으며, 고심하며 확립하고자 했던 우리 문학의 역사적 체계는 분단의 극복을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 시대 문학의 지표로 남게 되었다. 문학비평의 논리보다도 문학 자체의 감성에 더욱 애착을 보였던 비평가 김현 선생의 죽음에 우리는 달리 어찌할 논리도 감성도 갖지 못함을 슬퍼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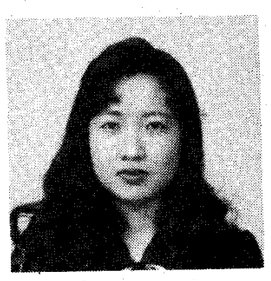


◇ 지난 6월, 마흔아홉살로 생을 마친 김현. 그는 '문학과 지성'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지적풍토를 일구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선생은 번득이는 예지와 날카로운 관찰력, 균형잡힌 언어로 이루어진 그의 비평적 작업과 함께 우리 문학사에 기록될 것이다"

권 영 민
〈서울대 교수·국문학〉

근대의 미학 — 칸트, 헤겔을 중심으로



이 주 영
〈홍익대 박사과정·미학〉

◇미학입문을 위한 시리즈(10)

관념론에 바탕한 美의 해석

칸트…미의 영역이 지닌 자율성 추구

근대 철학이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하듯이 근대 미학도 그의 합리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 개화한 17C 고전주의미학으로 부터 출발한다. 이어 계몽주의 철학과 18C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 졌던 미와 예술에 대한 풍부한 논의의 성과를 수렴하여 성립된 칸트, 헤겔 미학을 근대미학의 완성단계로 본다.

칸트는 철학을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으로 구분하고 전자에는 우리의 인식능력중 오성이, 후자에는 이성이 각각 상응한다고 하였다. 이론철학의 객체는 자연개념이고 실천철학의 객체는 자유개념이다. 그런데 칸트에 의하면 자연개념은 감성적 영역에 속하고 자유개념은 초감성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 양자사이에는 건널수 없는 심연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는 이 양자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수있는 매개항으로서 판단력을 설정하였다. 오성이 인식능력에 상응하고 이성이 욕구능력에 상응한다면 판단력은 쾌·불쾌의 감정에 상응한다.

우리가 이 쾌·불쾌의 감정을 가지고 어떤 것을 아름답거나 또는 아름답지 않다고 판정하는 능력을 칸트는 '취미판단'이라고 불렀다.

칸트는 취미판단을 질·양·관계·양상의 네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자면, 첫째 우리가 무엇을 아름답다고 판단할 때에는 만족을 느끼게 되는데 이 만족은 무엇이 선하다고 판단할때 느끼는 만족이나 쾌락을 주는 만족, 즉 쾌적과는 다른 만족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만족은 어떤 대상에게 관심을 갖기 때문에 느끼기 쉬운 만족인데 비해 순수한 미적 판단에서 느끼는 만족은 일체의 관심과는 무관한 만족, 즉 무관심적 만족이라는 것이다.

두번째로, 미란 개념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어떠 어떠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개념적, 논리적 전제는 미적 판단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적 판단에서 느껴지는 만족의 보편성은 단지 주관적인 것이다.

세번째로, 미적 판단에는 어떠한 목적도 있어서는 안된다. 취미판단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대상의 합목적성의 형식뿐이다. 또한 순수한 취미판단은 자극과 감동에 무관하다.

네번째로 취미판단의 만족이 단지 주관적인 것이라면 취미판단에는 아무 필연성이 없는가? 칸트는 취미판단에도 필연성이 성립된다고 보는데, 그는 취미판단이 주장하는 필연성의 조건을 공통감의 이념으로 들고 있다. 공통감이란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아름답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미적판단의 동의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지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한다. 취미판단에 있어서 보편적 동의의 필연성은 주관적인 것이지만 공통감이 전제가 된다면 객관적인 것이 된다.

칸트는 이렇게, 진선미 일체 사상의 지배적으로 내려오고 있던 서양미학사의 흐름속에서, 미의 영역이 지닌 자율성을 구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미적판단은 무엇이 옳다던가 무엇이 선하다든가 무엇이 나에게 쾌락을 가져다 준다든가 하는 등의 판단과는 구별되는 나름대로의 고유한 영역속에서 성립된다. 칸트는 이러한 미적 판단이 구상력과 오성의 '자유로운 유희'속에서 이루어 진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한마디로 미를 '도덕성의 상징'으로 정의하였다.

칸트가 근대 미학의 한 거봉을 이루고 있다면 또 하나의 거봉은 헤겔이다. 헤겔은 객관적 관념론의 기초위에서 미와 예술에 대해 역사철학적으로 접근하였다. 헤겔은 세계사를 정신(Geist)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전개해 온 과정으로 보았다. 정신에는 세 단계가 있다. 주관정신, 객관정신, 절대정신이 그것이다. 주관정신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는 '개인의 정신'이다. 객관정신이란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회적·역사적 세계로서 실재하는 정신이다. 주관정신과 객관정신은 절대정신에 있어서 통일을 발견한다. 절대정신은 주관과 객관의 대립을 지양하여 오늘날 우리가 보통 '문화'라고 하는 부분을 다룬 것이다. 그 내용은 예술, 종교, 철학을 이룬다.

헤겔의 미학은 이 절대정신의 영역에 속한 예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에게 있어 철학의 한 분야로서의 미학은 예술과 철학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헤겔이 미학의 대상을 예술미에 국한시키고 있는 이유는 그가 모든 것을 '정신'의 토대위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예술미가 정신이 삼투되어 탄생된 미이므로 무차별적인 자연존재의 미보다는 더 우월하다고 하였다. 예술을 향한 인간의 보편적 욕구는 이상적 욕구로서 인간이 내적·외적 세계를 하나의 대상으로 취하여 스스로 정신적 의식에로 고양시키고 그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자아를 재 인식하려는 욕구이다.

예술은 종교나 철학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가장 깊은 관심들과 가장 광범위한 진리를 의식하게 하고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예술이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은 그 진리를 감각적으로 표현하며 그것을 감각과 감정속에서 설명한다. 예술은 감각적인 예술형상속에서 진리를 드러내고 화해된 대립을 표현할 임무를 띠고 있다.

헤겔은 이렇게 미학적 사유의 대상을 자신의 전 철학체계 내의 한 부분으로 위치시키고 고유한 역할을 부여하였다. 예술은 종교와 철학과 더불어 절대정신의 영역에 속하고, 주관정신과 객관정신에 속하는 모든 것이 소멸될 지라도 예술, 종교, 철학이 담고 있는 진리는 오래 남아 역사의 폐기처분을 면하게 된다. 예술, 종교, 철학은 헤겔에게 있어 전체로서의 진리를 이해하는 동일한 목표로 나아가는 서로 다른 길이 된다.

이렇게 근대미학은 칸트와 헤겔에게서 완성을 보았지만 그 관념론적 전제로 인하여 이후 다양한 각도에서의 비판과 극복의 시도를 낳았다. 그리하여 19C 중엽이후 미학사의 흐름은 훨씬 풍부하고 복잡하게 지류가 갈라져 발전하면서 현대로 이행하게 된다.

◇오는 10월4일까지 공연이 계속되며 매일 약 1천여명의 관객이 찾고있다

문화♪탐방

현실과 연극의 만남 '서울연극제'

혜화동 대학로의 문예회관 대·소극장·'서울연극제'를 찾아 이곳에서 처음 만난것은 우선 행사를 알리는 커다란 현수막이었다. 공연을 알리는 오색의 포스터, 그리고 공연시간 30분전부터 총총히 모여드는 젊은이들속에서 올해로 열네번째 맞이하는 한국연극의 축제를 실감할 수 있었다.

문득 현수막 한 귀퉁이의 '주최:한국연극협회'라는 글자가 생생히 다가왔다. 얼마전 연극제의 민간주최 문제로 생겼던 마찰을 알리는 기사의 기억에 이어, 현재는 거의 극단 자체기획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에, 아직은 순수민간운영이 어려운 우리연극의 한계를 보는것 같아 씁쓸했다.

문예회관 대극장 지하의 분장실엔 마침 극단 '성좌'가 '한가위 밝은달아'의 공연을 앞두고 막바지 연습에 열중이었다. 극단 '성좌'의 이번 연극은 산업화에 일그러지고 소외된 농민과 그들의 의식변화를 그린 창작극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오늘날 우리 사회 여성의 위상을 되짚어보는 극단 '쎄실'의 '혀', 거대사회속에서 파멸해가는 인간을 그린 극단 '맥토'의 '시민조갑출'등이 참가를 기다리고 있어, '서울연극제'가 어느덧 현실과 연극의 만남의 장이 돼가는 것 같았다.

"우연히 대학로 나왔다가 보게 됐어요.", "연극에 관심이 많아 계속 보아왔는데,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것 같아요" 이곳을 찾는 하루 1천여명의 다양한 관객들에게 문득 분장실에서 만난 연극인 이정성씨의 말을 들려주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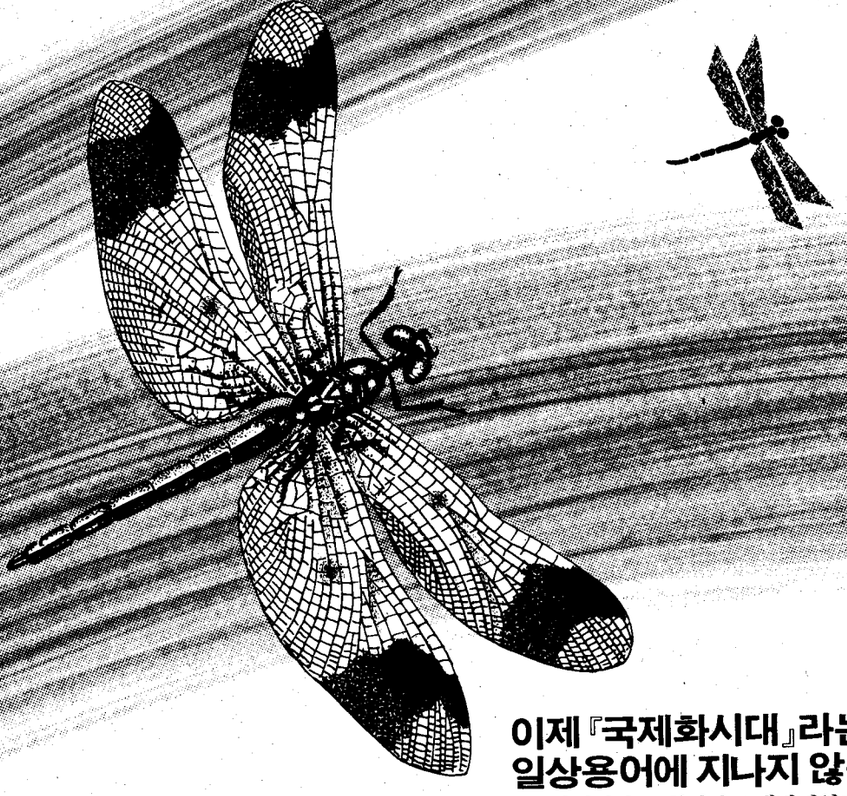
"가장 힘든점은 무엇보다 '좋은작품만들기'이죠. 그리고 현실문제를 다룸에 있어, 연극이 현실을 뒤쫓아가는것 같아 항상 부끄럽습니다." 〈鈴〉

첨단의 FA기술·정상의 FA기술

GoldStar
FA TOTAL FACTORY AUTOMATION

공장자동화로 탈바꿈하십시오。

企業変身



럭키금성

이제 『국제화시대』라는 말은 일상용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담배시장, 보험시장도 개방되었죠.
외국금융회사는 단말기를 통해 정보를 판매하고 돈을 벌어가는 시대 —
어느날, 귀사가 생산하는 제품도 시장개방이 되었을 때 당당히 경쟁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들의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제 공장자동화는 기업경영에 필수요건입니다.
공장자동화로 경쟁력 강화를 통해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잠자리의 비상을 함께 하십시오.

금성이 협력하겠습니다.
산전부문의 4개 회사들은 유기적인 기술체제를 통해 단위기기자동화부터 전 생산라인의 자동화까지 완벽한 공장자동화를 구축해 드립니다.
●금성산전 자동화사업부 774-1522~24 ●금성계전 FA기기사업부 728-1391~93
●금성기전 전자사업부 787-5876~78 ●금성하니웰 공장제어사업부 728-1520, 1530

GS 금성 產電部門
●金星產電●金星計電
●金星機電●金星하니웰